

트럼프 쇼크에도 코스피 종가 기준 '5000피' 달성

외인·기관 쌍끌이매수
삼성전자 4.87% 급등
8.70% ↑ '80만 닉스'
코스닥도 1082.59 최고

미국발 관세 쇼크에도 코스피가 27일 3% 가까이 급등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26p (2.73%) 오른 5084.8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70p (0.34%) 내린 4932.89로 시작해 장 초반 4890.72까지 떨어지며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낙폭을 줄여 상승세를 타고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이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전날 기록한 정장 사상 최고치인 5023.76도 모두 까이치우며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13억원과 232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199억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중후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며 주도적으로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을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 시장에서도 4292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792억원과 3556억원 매도 우위였다.

코스피 상승은 국내 시가총액 상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한 계약이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전장보다 1.91% 내린 14만9200원까지 밀렸지만 최종적으로는 4.87% 급등한 15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만 전자'를 지켜내고 '16만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도 0.41% 내려 73만3000원 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 8.70% 오른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는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70만닉스'를 돌파한 이후 16거래일 만에 '80만닉스'라는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또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약

재를 닦고 전 거래일보다 12.30% 오른 6만9400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는 한때 7만 16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

다. 코스피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협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켜 나갔다.

송선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SNS를 통한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단기 과민 대응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 봐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22p (0.96%) 내린 1054.19로 출발했으나

18.18p (1.71%) 오른 1082.59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4년 만에 처음으로 1000선을

넘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1조6516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1조459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외국인도 1109억원을 순매도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국유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기관별 상담 부스를 둘러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올해 정규직 2만8000명 채용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청년인턴 2만4000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시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기획사에서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년 채용 계획보다 4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채용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국립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은 전년보다 3000명 증가한 2만 4000명이다.

올해 박람회는 148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년 맞춤형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인공지능(AI) 현장 매칭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다.

구직자가 헬프연봉·지역 등 구직 데이터와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조건 적합도를 AI가 분석해 추천기관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약 6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면접 탈락사례를 사전에 제출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 등 전략을 짜주는 프로그램이다.

'연매출 1억400만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 지급

중기부, 내달 9일부터 접수…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를 설 명절 전부터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

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

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

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

정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

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로 운영한다. 접수 첫 날인 다음달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같은 달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세관, 설명절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광주본부세관은 27일 설 명절 연휴기간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하는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를 주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8일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별지원 기간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지연 없이 통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시개정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

정에 따라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

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광주세관은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을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세관은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하고 환급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 작년 고객 금융사기 피해 55억 차단

광주경찰청 우수기관 선정…문화동지점 현판식

광주은행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55억원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빛고을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문화동지점은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영업점'으로 지정돼 최근 현판을 수

여한 직원들도 감사장을 받았다. 문화동지점은 지난해 하반기만 3건, 약 1억27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광주은행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영업점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을 통해 지난 2023년 28억원, 2024년 39억원에 이어 지난해 55억원 규모의 고

객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가격 폭리에 4000억대 탈루혐의 국세청, 생필품 17개사 세무조사

생활필수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한 업체들이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생필품 17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을 한 5개 드록점 기업, 원가를 부풀린 6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6개 면역기 유통업체다. 대기업 2곳·중견기업 2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해 서민 부담을 기증하며 세금을 탈루했을 뿐 아니라 시의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를 불리는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탐찰 대가로, B사는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이의 수십억원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 유

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의 수십억원을 허용했다.

특히 미국 현지사에서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 자녀의 체재비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수십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한 또 다른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전 직원 명의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를 고가로 매입해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면 곳에 사는 70대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D사는 드록점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제품 가격을 33.9% 인상한 곳이다.

국세청은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D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탈루 혐의 액수는 1500억 원 수준이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G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곳이다.

연합뉴스